

최대진 개인전, 윌링앤딜링

Tous les meurtres que j'ai v(éc)us / 내가 (살아)본 모든 살인들

나는 미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늦게 시작한 사람이다. 내가 미술을 처음배웠던 당시 프랑스의 미술학교는 고전적인 미술 매체인 회화나 조각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고, 매체나 기술의 연마보다는, 개념미술이라고 소위 통치면서 말하는 생각의 의미나 태도에 대한 훈련을 끊임없는 강요(?)하는 교육을 받았다. 그로 인해 자신만의 테크닉을 쌓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매체와 미디어들을 실험하면서 미술학교 시절을 보냈다. 나는 설치, 영상, 사운드, 입체 작업 등 작업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하는 질문보다 '이것은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작업인가?'하는 텍스트적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다. 이런 작업의 제작 방식에서 드로잉은 모든 작업의 기본이 되었다, 드로잉은 에스키스나 크로키같은 형태로 이후 작업의 도면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 자체로 종결된 예술 작업이 되는 많은 드로잉을 그리기도 했다.

프랑스어로 쓰여진 전시 제목을 정확히 한국어로 번역하면 '내가 (살아)본 모든 살인들'이라는 뜻이며, 내가 프랑스에서 학생 시절 석사학위 심사에서 전시했던 작업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것은 130여개의 작은 드로잉들이 큰 직육면체의 좌대같은 형태에 빈틈없이 뽁뽁히 붙어 있던 작업이었는데, 나에게 드로잉을 그리는 것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준 작업이다. 프랑스어로 쓰인 v(éc)u는 산다는 것과 본다는 것이 결합된 일종의 언어유희로 시각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는 것이 바로 삶이라는 일종의 선언적 문구이기도 했다. 나는 이 작업의 제목을 이번 개인전의 전체 제목으로 쓰기를 결정했고, 나의 작은 드로잉들 중 선택된 이미지들을 다시 목탄으로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그리기로 했다. 여기서 살인의 의미는 다층적이고, 은유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이다. 거기에는 관념과 욕망과 마음이 들어가 있다.

전시에는 장미를 그린 세 개의 그림이 있다. 이 장미 그림들 사이로상호간의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드로잉들이 끼워져 있다.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내러티브가 없는 내러티브'를 만들어 보기 위해 장미의 이미지를 장면들이 흘러가는 사이의 편집점처럼 마치 시퀀스를 구분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싶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는 영화에 대해서 쓴 책 <시네마>에서 예술작품은 의사소통의 도구도, 특정한 정보를 포함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은 저항의 정신과 근본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말했다. 나에게 살인이라는 단어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다. 이 전시의 드로잉과 조각에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이미지와 형태가 들어있지만 그 안에 내재된 생각과 의미가 직접적인 소통의 도구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규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픽션의 공간으로 들어간다.